

“지역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전략 필요”

광주-전남연구원·방재학회 공동 세미나 복합재난 대응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강조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한국방재학회가 복합재난 시대를 대비한 과학적 재난 관리와 지역맞춤형 대응 전략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광주연구원은 17일 전남연구원,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서 ‘복합재난 시대의 과학적 재난관리와 지역맞춤형 대응전략’을 주제로 재난안전 정책·기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 심화와 도시화 진전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한국방재학회를 비롯해 학계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광주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취약요인 진단(김연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전남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방안(유인상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토지이용

을 고려한 도심지 저류능력 평가기술(주진걸 동신대학교 교수) 등 지역 데이터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증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박무종 한서대학교 교수 좌장을 맡아,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광역권 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임남형 한국방재학회 회장은 “2024년 광주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를 시작으

로, 올해는 전남연구원과 함께 세 번째 공동세미나를 열며 지역 재난안전 연구의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 연구원이 참여하는 재난 대응 협력의 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국 광주연구원장은 “복합재난 시대에는 지역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진단과 기관 간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재난 대응 역량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광주·전남 광역연합 차

원의 재난안전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방재학회가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두 연구원은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추진과 한국방재학회의 학술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주)대한철강, 전남TP 손잡고 2030년 도약 지역 상생·기술혁신으로 매출 1000억 기업 ‘도전’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 위치한 철근 가공 전문기업 (주)대한철강(대표 조홍석)이 창립 18주년을 맞아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지역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일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에 따르면 대한철강은 2007년 광주에서 자본금 6000만원, 직원 3명으로 출발했다. 이후 2014년 합병 해보농공단지로 확장 이전한 뒤 ‘효율·품질·경제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자동화 설비 도입과 생산라인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2018년 128억원이던 매출은 2022년 421억원으로 급증했고 현재는 임직원 약 30명 규모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대한철강은 철근 기공자동화 시스템, 실시간 재고관리,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000억원, 임직원 6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함평 이전 후 자동화·생산 고도화 매출 급성장 특장차 구조물 개발 성공…기술연구소 등 추진

MAIN-BIZ(경영혁신형), INNO-BIZ(기술혁신형), 뿌리기술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 신뢰도도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는 각종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대한철강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 장관표창 △전남도 일자리우수기업 표창 △중소기업인대회 지역소멸 대응 중앙회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지역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전남TP가 주관하는 ‘지역소멸 대응 합평군 운송기기부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철근 가공 기술을 응용한 특장차 구조물 개발에 성공했다. 단순 가공업에 머물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사업은 함평군의 주력 산업인 운송기기

부품과 전후방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의 외형 성장만큼 눈에 띄는 것은 사회공헌 활동이다. ‘기업은 지역이 있어 존재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취약계층과 장애인,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에는 합평군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광주 발달장애인 시설 기부와 용진육아원 후원 등 총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조홍석 대표는 광주 아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대학교와의 산학협력 특성화고 도제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 대표는 “고객에게 기울인 진심과 신뢰, 그리고 전남테크노파크와 자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과 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대한철강 공장 전경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광주 관광을 소재로 한 굿즈와 아이템을 선보이는 ‘무등창고×광주관광센터’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 광주점, 광주 알리는 굿즈 팝업

25일까지 ‘무등창고×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협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광주 관광을 소재로 한 굿즈와 아이템을 선보이는 ‘무등창고×광주관광센터’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굿즈와 아이템 홍보로 지역 기업의 자생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팝업스토어에는 광주 명소 마그넷 세트, 티셔츠를 비롯해 상추튀김, 떡갈비 등 먹거리와 표현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무등산을 테마로 한 의류 등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광주의 특색있는 브랜드를 모아둔 특별한 청고리는 의미를 담았고 지역 우수 관광 기업과 센터 추진사업으로 개발한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광주시만의 특화 관광사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유한 관광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관광 전문인력, 관광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지역 기업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기업·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기업 상품 전시·판매, 체험 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DH 글로벌

www.global-dh.com